

전북형 전략산업 인재·정주 생태계 구축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전북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까지 책임질 것”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북형 전략산업 인재·정주 생태계’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6일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기조와 연계해 “전북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까지 책임지는 전주형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교육과 산업, 정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육부 핵심 정책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를 전북 실정에 맞게 재



설계에 대학 중심 정책을 지역 실행형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예비후보는 기초학력 보장부터 전략산업 심화 교육, 취업과 창업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주형 교육 체계를 공교육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은 크게 교육·산업·정주 연결 구조 구축 전략산업 기반 5대 인재 트랙 운영 시·군별 미래교육 거점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시·군별 맞춤형 미래교육 거점화 방안도 제시했다. 전주는 AI·디지털, 군산은 새만금·모빌리티, 익산은 농생명·바이오·보건, 남원은 공공의료 중심의 브랜드 고교를 육성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동부권은 작은 학교와 농촌유학을 활용한 특화 캠퍼스로 조성해 농산촌형 미래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모든 시·군에 최소 1개 이상의 전략산업 특화 고교를 지정·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와 교실을 넘어 대학과 산업 지역이 하나로 연결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전북에서 배우면 전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평가 우수 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68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등이 포함됐다.

평가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북교육청은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질적 평가 비중을 강화한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적극 대응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데이터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양성화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과 민간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발굴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AI 친화적이고 고부가가치 데이터 개방과 품질 관리를 확대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과장, 장학관·연구관 5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학교장 등 8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고위공직자 특별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청렴 전북교육 실현...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다짐

전북교육청, 5급 이상 850여명 대상 특별 청렴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고위공직자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반부패 실천 의지를 다졌다.

전북교육청은 6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과장, 장학관·연구관, 5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학교장 등 8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고위공직자 특별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관의 리더가 갖춰야 할 청렴 가치와 실천 의지를 높이고, 윤리경영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신뢰 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리더의 청렴 한걸음, 더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과 솔로진 제창을 통해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결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청렴 실천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 수행, 특히 제공 금지, 상호 존중의 조지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전북교육 청렴! 1등급’이라는 슬로건을 함께 외치며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상근 기자

군산대, 과학주간 행사 성료

국립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은 6일 군산교육특구 군산과학 X문화융합교육사업과 협업해 진행한 ‘2026년 3월 과학 주간’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국립군산대 황룡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봄을 심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학생과 시민들에게 색다른 과학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관내 학생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이번 과학 주간에서는 안주현 작가(중등고등학교)가 ‘생명의 언어들’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생명과학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또한 다크매너리 탄소를 세는 사람들’ 상영과 함께 전치형 교수, 백운석 감독, 권보호 교수가 참여한 관개과의 대화가 진행되어 과학과 환경, 사회를 잇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더불어 네트워킹 체험 프로그램인 ‘클로버 열쇠고리 만들기 부스’는 참가자들이 직접 만들기를 통해 과학적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주대-데스틴파워, 에너지 인재 양성 모델 구축

에너지기술공유대학 기반

장학생 선발·3500만원 출연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데스틴 파워(주)(대표 오성진)와 지난 3일 전주대학교 본관에서 ‘에너지기술공유대학(ETU) 사업 기반 산학장학생 선발 및 발전기금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대학교 전력전자연구실이 참여 중인 ETU 사업과 연계해,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학장학생 선발 및 지원 △대학 발전기금 기부 △에너지 분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이다. 총 출연 규모는 3,500만원으로 데스틴파워는 대학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하고, 매년 산학장학생 2명을 선발해 장학금 및 연구활동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전력변환 및 에너지저장장치(BSS) 분야 전문교육과 기업체 현장실습, 산학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한다. 특히 이들은 일정 기간의 연구 활동을 거쳐 채용으로 연계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전주대학교는 데스틴파워(주)와 지난 3일 전주대학교 본관에서 ‘에너지기술공유대학(ETU) 사업 기반 산학장학생 선발 및 발전기금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오성진 대표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며 “실무형 인재 육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류두현 총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김은수 부총장은 “단순한 장학 지원을 넘어 교육과 연구,

현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모델”이라며 “학생들이 에너지 분야 핵심 기술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스틴파워(주)는 에너지 변환 및 저장기술 기반의 전력전자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유망 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고, 지속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과학교육원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봄철 별자리와 함께하는 수·목·금 별빛여행’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봄 밤 수 놓는 별빛여행

전북과학교육원, 30일까지 야간 천체관측 운영 4월 과학의 달 맞아 매주 수·목·금 밤하늘 관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 봄을 맞아 도민과 함께하는 야간 천체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과학교육원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봄철 별자리와 함께하는 수·목·금 별빛여행’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4층 별빛마당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천체망원경을 이용해 봄철 밤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행성과 성단 달 등을 직접 살펴보고 우주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기상 악화로 인해 천체관측이 어려운 날에는 과학공작 체험활동으로 대체 운영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과학 체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과학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함께 진행된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과학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시체험관 재구조화 공사로 인해 5월부터 10월까지는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6년 제2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지역교권보호위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위원회 출범 2년 맞아 연수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범 2년을 맞아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6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6년 제2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권보호위원회 기능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마련됐다. 새롭게 위촉·임명된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연수에는 교원과 학부모, 경찰,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내 14개 시·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청은 연수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역할과 책무를 비롯해 실제 사안 처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심의 절차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더욱 탄탄하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1차례에 그쳤던 역량 강화 연수를 올해는 2차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앞서 전북교육청은 2024년 교권보호 가능 강화를 위해 학교 단위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바 있다. 현재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관할 지역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오상근 기자

내일 고1·2 교사 대상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진학지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마련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8일 오후 2시 청사 내 청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6 교육과정 연계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진학지도 방향을 공유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맞춤형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수에는 도내 일반고 1·2학년 담임교사와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는 대학 입학사정관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전북교육청 대입지원관이 직접 강의를 맡아 실질적인 진학지도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